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 만들기 7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 정명철 지음 |

쿰란출판사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이 인생의 가치가 각자 삶의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듯 인생이라는 집도 기초의 강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기초도 튼튼하지 않으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마 7:24)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가치를 두고,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세상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이 되고, 성경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7권의 제목을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정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 만들기 제1권《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제2권《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제3권《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제4권《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제5권《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제6권《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그리고 제7권《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출판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책이 출판되도록 힘써 주신 쿰란출판사와 도림교회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5년 12월 15일

정명철 목사

차례

머리말 … 2

1과 씨를 뿌리는 사람 … 7
2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 16
3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따라 … 26
4과 어린아이와 천국 … 36
5과 비전을 따라 사는 성도 … 46
6과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 56
7과 좋은 열매를 맺으라 … 66
8과 성전이신 예수님 … 77
9과 예수님 닮기 … 87
10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 98
11과 예수를 바라보자 … 109
12과 예수냐 바라바냐 … 118
13과 믿는 자가 되라 … 125
14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 136
15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 146
16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158
17과 족한 줄 알라 … 168
18과 미래를 품는 교회 … 179
19과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 190
20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 200
21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 … 210
22과 절망을 이기는 긍정의 믿음 … 221
23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 232

Contents

24과 주일은 회복의 날 … 244
25과 잊지 말라 … 256
26과 믿음으로 삽니다 … 267
27과 다메섹이 필요합니다 … 278
28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 289
29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 301
30과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 311
31과 승리자가 되십시오 … 321
32과 하나님 은혜라 … 333
33과 미혹되지 말라 … 342
34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 … 354
35과 행복한 사람 … 363
36과 은혜를 입은 사람 … 373
37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 … 384
38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 395
39과 소금기둥이 된 여인 … 403
40과 주일의 축복 … 414
41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 425
42과 주의 길을 준비하라 … 435
43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 446
44과 마리아의 찬가 … 456
45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 467

1. 씨를 뿌리는 사람

- 본 문: 시편 126편 5-6절
- 찬 송: 496장(새벽부터 우리, 통 260장)
- 요 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6)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되어 70년간 노예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들은 일을 하다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 고향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유명한 보컬이었던 '보니 엠'이 부른 'Rivers of Babylon'이란 노래가사가 이 내용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누렸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은혜를 달라고 죄악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예를 그냥 풀어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은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찼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의 신앙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해에 기도의 씨앗을 뿌린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씨를 뿌리는 일은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누워서 떡을 먹는 일도 힘이 듭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힘이 들고 이야기하는 일도 힘이 듭니다. 물건 팔기도 힘이 들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어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갑을 꺼내어 한 번 보고는 싱긋 웃는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일을 합니다. 그 지갑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지갑을 꺼내어 한 번 보고는 미소를 짓는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일을 합니다. 그 지갑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남편에게 "왜 지갑 속의 사진을 보고 싱긋 웃고 힘을 내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까짓 세상 못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남편도 길들이면서 살아왔는데 이까짓 세상 못 이기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힘 드는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힘이 들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하는데 농사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다 내려가서 농사짓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 힘이 드는 일입니다.

신앙의 씨를 뿌리는 일도 똑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마음의 밭에는 각자의 돌이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탐심의 돌, 정욕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큰 바윗덩어리가 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윗덩어리가 복음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가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미리 미리 다 먹어버립니다. 신앙에도 불평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자라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늘 비실비실하여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신앙생활이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같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힘이 들어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2.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자식 대에 거두게 됩니다.

중국의 보이차가 매우 유명합니다. 요즘은 오래된 진짜 보이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차가 유행하니 약으로 숙성시킨 가짜 보이차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원래 보이차는 만드는 데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듭니다. 집을 지을 때에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볏짚을 깝니다. 그리고 찻잎을 그 위에 깔고 다시 황토 흙을 덮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짚을 깔고 보이차 잎을 깔고 흙을 덮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들 대에 손자 대에 집이 낡아 새롭게 집을 짓게 되면 집을 부수고 땅을 팝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묵은 찻잎이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 보이차입니다.

후손들은 이 차를 팔아 집을 짓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집을 짓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또다시 후손을 위해 찻잎을 집의 기초 아래 깔아놓습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지혜입니다. 내가 거두는 것만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심고, 이웃을 위하여 심고, 미래를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잘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2.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자식 대에 거두게 됩니다.

중국의 보이차가 매우 유명합니다. 요즘은 오래된 진짜 보이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차가 유행하니 약으로 숙성시킨 가짜 보이차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원래 보이차는 만드는 데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듭니다. 집을 지을 때에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볏짚을 깝니다. 그리고 찻잎을 그 위에 깔고 다시 황토 흙을 덮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짚을 깔고 보이차 잎을 깔고 흙을 덮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들 대에 손자 대에 집이 낡아 새롭게 집을 짓게 되면 집을 부수고 땅을 팝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묵은 찻잎이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 보이차입니다.

후손들은 이 차를 팔아 집을 짓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집을 짓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또다시 후손을 위해 찻잎을 집의 기초 아래 깔아놓습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지혜입니다. 내가 거두는 것만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심고, 이웃을 위하여 심고, 미래를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잘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고,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의 후손들이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3.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호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은 반드시 내가 한 대로 갚아 준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시간은 그대로 나에게 갚아 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느냐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느냐고 하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게 만드는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융통성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긴장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집에서 너무 엄

하게만 키운 것입니다. 씨를 그렇게 뿌렸으니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씨앗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심을 때를 놓치면 추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도 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사업을 해도 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씨앗을 잘못 심었어도 다시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두게 해주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8-9)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라고 생각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도 맞고 굶었으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얼마나 몸이 쑤시고 춥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마가를 만나 가르칩니다. 감옥이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마가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뿌린 씨앗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비전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내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 무디 같은 사람, 한국에서도 전도부인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를 심었으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가라지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임금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눈물로 마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좌절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도 우상처럼 사랑하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직장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자식을 키워도, 정치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원에 심은 것은 가라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씨앗의 특징은 후손들이 거두기도 하지만 내가 심고 내가 반드시 거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이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열

매, 이것보다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됩시다.

적용

① 오늘 말씀의 주제 파악하기

② 오늘 말씀 중 은혜 받은 부분 나누기

③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

1. 한 해 동안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게 하옵소서.
2.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3. 한 해 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